

SNK 캐릭터 총집합! 中대형 게임사 CMGE가 모바일 신작으로 선보여

- CMGE, SNK IP 활용한 전략 카드게임 'All Star Fight' 출시 준비
- 'KOF', '사무라이 쇼다운', '월화의 검사' 캐릭터간 대난투 '기대감 UP'
- 오는 13일 中 비공개 테스트(CBT) 예정



중국 대형 게임사 CMGE, SNK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 'All Star Fight' 준비 중

SNK인터랙티브(대표 전세환)가 자사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제작중인 모바일 신작 'All Star Fight'에 대해 세부적인 공식 보도자료를 12일 발표했다.

'All Star Fight'는 전략 카드 게임으로, 중국 거대 모바일 게임사 CMGE(China Mobile Games and Entertainment Group Limited)가 SNK의 IP를 활용해 선보일 예정이다.



'All Star Fight' 중 SNK의 인기 캐릭터 '쿠사나기 쿄'

특히 이번 모바일 게임은 SNK의 대표 IP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KOF)', '사무라이 쇼다운', '월화의 검사'를 기반으로 제작, '쿠사나기 쿄', '야가미 이오리', '시라누이 마이', '타치바나 우쿄', '나코루루', '카에데' 등 SNK의 인기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투를 펼친다. 'All Star Fight'는 SNK 오리지널 격투 게임의 대전 액션을 캐릭터 조합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핵심인데, 해당 요소를 활용해 각 파이터들의 화려한 스킬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All Star Fight’ 중 SNK의 인기 캐릭터 ‘야가미 이오리’

나아가 ‘All Star Fight’는 추억의 오락실 게임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홍보영상을 지난 9월에 공개했다. 홍보영상에서 게임의 분위기와 전투를 살펴볼 수 있는 인게임 영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SNK 라이선스를 모바일 시대에 맞춰 리뉴얼 하면서도, 당시의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내 중국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All Star Fight’ 중 SNK의 인기 캐릭터 ‘타치바나 우쿄’

이에 SNK 전세환 대표는 “이번 출시 역시도 이미 오래전부터 긴밀히 협의해 온 제휴 중 하나다”고 말했다.

한편, ‘All Star Fight’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비공개 테스트(CBT)를 진행해 게임의 완성도와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CB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l Star Fight’ CBT 사이트: https://allstar.dailygn.com/?from_source=event001 <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